

# 노년기 배우자 사별이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pouse Bereavement in Old Age o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손종미,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Jong Mi Son(waterfalli@naver.com), Sang-Hae Byun(jm9004@svu.ac.kr)

###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우울과 불안)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별사유와 사별 기간을 바탕으로 생존 배우자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서울과 수원 및 오산 지역의 노인복지관, 노인학교와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6일에서 10월 25일 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325부에 대해 SPSS WIN 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별사유 및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사별사유나 기간에 관계없이 통합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중심어 : | 정서 | 노년기 | 사회적 상호작용 | 배우자 사별 |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to analyze how emotion(depression and anxiety) after spouse bereavement in old age affects social interaction and to set a direction of developing programs based on the cause and period of bereavement to promote social interaction for those bereaved people. To that end,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s for the elderly and churches located in Seoul, and Suwon and Osan areas were visited and surveys were executed on 350 aged people who had experienced spouse bereavement from September 26 through October 25, 2014. Analysis was executed for 325 questionnaires out of the total of 350 using SPSS WIN 20.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due to bereavem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second, the average of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due to bereavement perio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third, the impact of bereavement type and perio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implies that social interaction programs for the aged people can be developed regardless of bereavement cause or period.

■ keyword : | Emotion | Old Age | Social Interaction | Spouse Bereavement |

## I. 서론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 사별은 가장 큰 실존적 경험으로, 세상에 남겨진 배우자에게 정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1]. 특히 노년기 사별 후 적응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2]. 통계청의 인구추이자료[3]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매개로 노인 자살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는 다른 무엇보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5][6].

최근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 개선을 포함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배우자 사별이 주는 스트레스나 사별 후 적응 등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연구들이다[7].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의 사별이 불안과 우울감과 같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나 친구 또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정서를 개선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 배우자 사별

#### 1.1 사별에 대한 개념

사별이란 죽음을 통하여 가까운 이를 상실한 상태이

자[8],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내면세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9].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므로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사건이자[10], 남은 삶에서 심리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

이처럼 사별(bereavement)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내적·외적인 변화, 내적인 심리적 과정, 슬픔의 표현과 경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2].

#### 1.2 노년기 배우자 사별의 영향

노년기에 일생을 함께 해 온 배우자와의 사별은 '폭포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여러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온다[13]. 또한 슬픔과 외로움 등 애착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1차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자긍심을 키워주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는 대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14][15]. 배우자와의 사별은 배우자와의 지위에 형성된 자아상을 상실하고,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 세웠던 자신의 미래 계획도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1].

사별은 또한 슬픔, 죄의식, 후회감, 혼돈감, 목적 상실, 동기나 흥미의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므로,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6].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보다 고독감이나 소외감의 정도가 높으며, 배우자 상실 자체만으로도 생활만족 감퇴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다[17]. 더 나아가 배우자 사별은 건강의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더불어 노년기 정서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6], 생존해 있는 가족들의 건강한 자원을 소진시키거나 불안감까지 초래하기도 한다[18][19].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 전의 병간호와 사별 후의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별 전에 오랜 병간호로 지친 사람이 더 높은 우울증상과 더 나쁜 건강 습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0].

## 2. 노년기 정서

정서는 기분(mood), 느낌(feeling), 감정(emotion) 등 다양한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21].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눈에 잘 띄며[22][23],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24].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소외, 주변인들의 상실 경험 등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노인들은 우울감과 불안감, 고독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5-27]. 김은경·하규수[28]는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최형임 외[29]는 노인의 절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aren[30]은 노인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 기반이 없을 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McPherson[31]은 노인들이 자녀와 친구 관계에서의 정서적 및 도구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인지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여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서는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 3.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개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타인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32]. 사회적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이고, 상호 교환적이며, 한 사람의 사회적 시작행동과 또 다른 사회적 반응행동으로 이루어진다[33]. 따라서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활할 때 서로 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발달된다. 또한 서로의 정서 체험을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써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더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은 물론 안정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4-36]. 따라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변화를 느끼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37][38].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상실하는 사건은 삶의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초래한다[10]. 또한 상호작용의 부재나 부족은 다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져[39] 자살과 같은 극단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6]. 따라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자 건강한 정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 문제

#### 1.1 연구모형

노년기 배우자 사별 및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및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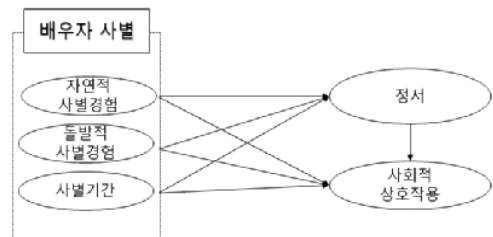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1.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사별은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배우자 사별과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각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배우자 사별 및 사별기간에 따른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3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1: 배우자 사별 사유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사별 기간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각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1: 돌발적 사별에 따른 정서가 자연적 사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2: 사별 기간이 따른 정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이 노인이므로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응답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 문항에 대한 구술 설명과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일대일 개별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은 서울과 수원과 오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과 노인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배포는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도(수원과 오산) 지역이 각각 50%가 되도록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관, 노인학교 및 교회의 비율을 각각 50%, 30% 20% 순이었다. 설문은 총 350장을 배포하였으며, 설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325부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내용

### 3.1 정서(우울과 불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1989년 김창수[40]가 타당화 작업을 하고 김창수와 정성덕[41]이 표준화한 척도로서, 김현주(2005)[42]와 엄형욱 외(2005)[43]가 사용한 ‘불안·우울 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Likert 4점 방식, 총 25문항으로 1-9번은 우울과 불안을, 10-18번은 불안과 우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19-25번은 두 가지를 혼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1번,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이 자주난다”, 10번, “나는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진다”, 19번, “나는 기분이 언짢아서 우왕좌왕 한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척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전체 평균만을 반영하였다. 채점은 역산 방식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42]의 논문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 3.2 사회적 상호작용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44-47]를 기초로 김연수(2003)[48]가 재구성한 60문항의 사회적 건강 척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20문항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Likert 5점 방식,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여러 가지 클럽이나 모임의 회원이 되고 싶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년기 배우자의 사별 사유 및 기간에 따른 정서 및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 관계를 분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0만원이상	42	12.9
	합계	325	100.0
사별기간	1년미만	35	10.8
	1년이상~3년미만	75	23.1
	3년이상~5년미만	73	22.5
	5년이상	45	13.8
	10년이상	97	29.8
	합계	325	100.0
사별사유	질병	74	22.8
	사고	48	14.8
	자살	19	5.8
	노환	139	42.8
	스트레스	2	.6
	기타	2	.6
	합계	325	100.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구분		빈도	백분위
성별	남자	68	20.9
	여자	257	79.1
	합계	325	100.0
연령	65~69세	40	12.3
	70~74세	101	31.1
	75~79세	108	33.2
	80~84세	73	22.5
	85~89세	3	.9
	합계	325	100.0
종교	기독교	56	17.2
	천주교	53	16.3
	불교	69	21.2
	무교	133	40.9
	기타	14	4.3
	합계	325	100.0
동거가족	재혼/동거	15	4.6
	자녀와 동거	33	10.2
	자녀/손주와 동거	89	27.4
	독거	187	57.5
	결측치	1	.3
	합계	325	100.0
월간 총수입	없음	102	31.4
	50만원미만	66	20.3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74	22.8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1	12.6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68명(20.9%), 그리고 여성이 257명(79.1%)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 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대는 65~69세가 40명(12.3%), 70~74세가 101명(31.1%), 75~79세가 108명(33.2%), 80~84세가 73명(22.5%), 그리고 85~89세가 3명(0.9%)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70대 응답자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기독교가 56명(17.2%), 천주교가 53명(16.3%), 불교가 69명(21.2%), 무교가 133명(40.9%), 그리고 기타 종교가 14명(4.3%)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구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독거 형태가 187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손자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89명(27.4%),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33명(10.2%), 재혼이/동거 형식으로 살고 있다는 응답이 15명(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총수입의 경우,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102명(31.4%), 50만원 미만인 66명(20.3%), 50만원~100만원 미만이 74명(22.8%),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1명(12.6%), 200만원 이상이 42명(12.9%)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사별 기간은 1년 미만이 35명(10.8%), 1년 이상~3년 미만이 75명(23.1%), 3년 이상~5년 미만이 73명(22.5%), 5년 이상이 45명(13.8%), 그리고 10년 이상이 97명(29.8%)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별 사유로는 질병이 74명(22.8%), 사고가 48명(14.8%), 자살이 19명(5.8%), 그리고 노환이 139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와 기타가 각각 2명(0.6%)으로 조사되었다.

## 2. 가설검증

### 2.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에서는 배우자 사별 사유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에 앞서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분석 목적 상, 인터뷰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어느 정도 예견된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사별을 자연적 사별(질병, 노환, 스트레스),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별을 돌발적 사별(자살, 사고, 타살)로 이분화하여 사별 후 경험하는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자연적 사별 집단의 정서 평균은 2.76점, 돌발적 사별 집단의 정서 평균은 2.7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은 자연적 사별 집단이 2.84, 돌발적 사별 집단이 2.7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t검정에서 정서정가  $t=-.041$ ,  $p=.967$ , 사회적 상호작용이  $t=1.452$ ,  $p=.148$ 로 나타나 집단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2].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로서 배우자 사별은 생존 배우자의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별 사유에 따른 차이는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 평균은 2.66~2.87점 사이에 분포했고,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0.2~0.1점이었으며, 사별 기간에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도 2.66~2.86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도 0.1점 미만이었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한 F검정 결과, 정서( $F=17.855$ ,  $p=.001$ )와 사회적 상호작용( $F=9.368$ ,  $P=.048$ )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는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

표 2.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 및 상호작용 분석

	사별 사유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정서평균	자연적 사별	256	2.7683	.69891	-.041	.967
	돌발적 사별	69	2.7722	.69777		
	전체	325	2.7702	.69889		
상호작용평균	자연적 사별	256	2.8412	.53803	1.452	.148
	돌발적 사별	69	2.7326	.59956		
	전체	325	2.7869	.55753		

표 3.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 및 상호작용과 관련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모형	사별기간	N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집단간)	평균제곱	F	p-value
정서평균	1년미만	35	2.7794	.56388	1.667	.417	17.855	.001
	1년~3년	75	2.8795	.63510				
	3년~5년	73	2.7808	.65953				
	5년이상	45	2.6622	.68843				
	10년이상	97	2.7208	.81119				
	합계	325	2.7691	.69759				
상호작용 평균	1년미만	35	2.8157	.39459	.113	.368	9.368	.048
	1년~3년	75	2.7973	.58216				
	3년~5년	73	2.8630	.56415				
	5년이상	45	2.8689	.56712				
	10년이상	97	2.7778	.56835				
	합계	325	2.8182	.55250				

과는 가설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에서는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돌발적 사별이 자연적 사별 집단보다 크다는 가설을 전제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  $F=58.725(P=.000)$ , 회귀식에 대한  $R^2=.273$ 로 27.3%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VIP가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표 4].

회귀분석 결과, 자연적 사별로 인한 정서와 돌발적 사별로 인한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33과 -.355였다. 이는 자연적 사별과 돌발적 사별에 따른 정서(우울과 불안)의 증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각각 .233 및 .355만큼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돌발적 사별이 자연적 사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가설 4의 검증

본 논문에서는 배우자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

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  $F=27.9505 (P=.001)$ , 회귀식에 대한  $R^2=.269$ 로 26.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VIP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표 5].

회귀분석 결과,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별 기간에 대해  $-.222 \sim -.268$ 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강도 차이에서는 1-3년 미만( $-.265$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은 10년 이상( $-.256$ ), 1년 이상( $-.249$ ), 1년 미만( $-.243$ ), 그리고 3-5년( $-.222$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집단 간 규칙성을 갖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짧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한점

본 논문은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

표 4.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 $\beta$ )	t	P	VIF
(상수)	3.435		28.444	.000	
자연적 사별	-.233	-.281	-3.726	.007	1.801
돌발적 사별	-.355	-.393	-4.841	.000	1.833
전체	-.255	-.295	-4.182	.003	1.815

$R^2: .273$ , 수정된  $R^2: .268$ ,  $F: 58.725$ ,  $P=.000$ ,  $D-W: 1.987$

표 5.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 $\beta$ )	t	P	VIF
(상수)	2.038		13.104	.000	
1년미만	-.243	-.311	-5.758	.000	1.273
1년~3년	-.265	-.401	-2.951	.004	1.245
3년~5년	-.222	-.285	-3.223	.039	1.161
5년이상	-.249	-.314	-4.676	.000	1.165
10년이상	-.256	-.296	-4.187	.000	1.159
전체	-.268	-.334	-4.841	.000	1.195

$R^2: .269$  수정된  $R^2: 0.256$   $F: 27.950$   $P=.001$   $D-W : 1.910$

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 사별은 사별을 경험한 생존배우자의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와 [15]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8]. 이는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사별기간에 따른 생존 배우자의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과 [19]와 [39]의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돌발적 사별에 따른 정서가 자연적 사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영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으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기관과는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수원과 오산)을 중심으로 표본을 설정하였으므로 배우자를 사별한 모든 생존배우자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노인복지관, 노인학교)과 무료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저소득층의 분포가 편중되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료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로 확대하여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별사유 및 사별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설명력이 미진하므

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별로 인해 초래된 낮은 정서(우울과 불안)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됨으로써 노인복지는 물론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복지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이이정, 죽음학 총론, 학지사, 2011.
- [2] 장수지,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정에서의 개인적 성장”,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4호, pp.165-193, 2013.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4]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결과, 2013.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자통계, 2013.
- [6] 박혜옥, 육성필, “부부친밀감에 따른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별스트레스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재-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제4호, pp.933-951, 2013.
- [7] 김승연 외,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사회적 지지와 대처 행동의 조절효과”, 임상심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pp.573-596, 2007.
- [8] M. L. Cooley, “Bereavement care: A role for nursing. Cancer Nursing,” Vol.15, No.2, pp.125-129, 1992.
- [9] C. M. Parkes and R. S. Weiss, *Recovery from bereavement*, New York Basic, 1983
- [10]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7.
- [11] C. M. Parkes,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9



- [12] G. Christ, G. Bonanno, R. Malkinson, and Rubin, "Bereavement experiences after the death of a child. In Institute of Medicine. M. Field & R. Behrman(Eds.), When children die: improving palliative and end of life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p.553-579, 2003.
- [13] S. L. O'Bryant and R. O. Hansson, *Widowhood*,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edited by Blieszner. R. and Bedford. V. 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5.
- [14] C. M. Parkes, "Psychiatric Problems Following Bereavement by Murder or Manslaughter," *BEREAVEMENT CARE*, Vol.12, No.1/1, 1993.
- [15] 장희선, *농촌여성노인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정*,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6] 오세근, 조준, 김영희, 최정민,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43-254, 2015.
- [17] 전길양, 김정옥, "배우자사별 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제38권, 제1호, pp.155-170, 2000.
- [18]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지지(사회활동, 가족/사회관계), 정서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4호, pp.225-235, 2014.
- [19] 백옥미, "중·노년기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의 관계: 은퇴와 사별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제4호, pp.94-115, 2013.
- [20] R. Schulz, S. Beach, B. Lind, L. Martire, B. Zdanink. C. Hirsch, S. Jackson, and L. Burton, "Involvement in caregiving and adjustment to death of a spouse: Findings from the caregiver health effects study," *JAMA*, Vol.285, pp.3123-3129, 2001.
- [21] 김근면, 차선경, "간호대학 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 표현, 정서표현 양면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3호, pp.322-332, 2013.
- [22] M. Snyder and J. Simpson, "The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December), pp.297-300, 1974.
- [23] M. Friedman and R. H. Rosenman,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169, No.0, pp.1286-1296, 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Knopf., 2007.
- [24] 유지영, "노인무용 교육효과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114-121, 2015.
- [25] 유광욱, 원유병, "노인들의 신체활동 유무·부정 정서·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pp.197-205, 2010.
- [26] D. Blazer 저, 김동배, 김유심, 문수경 역, *노년기 정신건강-노인의 정서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개입전략*, 학지사, 2007.
- [27] S. Peck and D. Dukes, *In heaven as on earth: a vision of the afterlife*, Hyperion, 1996.
- [28] 김은경, 하규수,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2호, pp.811-820, 2013.
- [29] 최형임, 채현탁, 송인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적 생활경험과 절망감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3권, pp.83-202, 2009.
- [30] Maren, "Synaptic mechanism of associative memory in the amygdala," *Neuron*, Vo1.47, No.6, pp.783-786, 2005.
- [31] R. McPherson, "Socialological perspectives on aging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Vol.2, pp.329-353, 1994.
- [32] 평평, 정용길, "서비스 환경이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390-400, 2012.

[33] 김경, 노인 수영참여자의 참여행동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4] 김초록, 신회천,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대처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2호, pp.451-469, 2011.

[35] Holmes, Jeremy and Y. K. Lee,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Seoul, Hakjisa, 2005.

[36] 이행욱, “노년기 부부의 상호작용과 이론적용,” 원주대학교 학술논집, 제2권, pp.101-113, 2001.

[37] C. B. Shearer, “The multiple intelligences and MIDAS sub-scale,” 1995.

[38] J. N. Giger and Ruth Elaine Davidhizar, “An Exceptional and Phenomenal Woman for All Seasons,” N. Journal-National Black Nurses Association, Vol.19, No.2, 2008.

[39] 김경유, 최유석, “사회적 지지가 중소도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208-219, 2015.

[40] 김창수, 불안-우울 통합적도의 임상적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1] 김창수, 정성덕, “불안, 우울 통합적도의 임상적 적용”, 신경정신의학, 제28권, 제6호, pp.67-147, 1989.

[42] 김현주, 포크댄스 프로그램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3] 염형욱, 정성덕, 서완석, 구분훈, 배대석, “노년기 여성과 불안-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영남의대학술지, 제22권, 제1호, pp.27-42, 2005.

[44] B. W. Lemon, W. L. Bengston, and J. A. Peterson,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27, pp.511-523, 1972.

[45] J. B. Beard and M. G. Ragheb,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siure*

Research, Vol.12, pp.20-33, 1980.

[46]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47] 김지혜, 김영환,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성격평가 질문지*, 서울: 학지심리검사소, 2001.

[48] 김연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건강과 스포츠 활동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저 자 소 개

손 종 미(Jong-Mi Son)

정회원



- 2011년 2월 : 상명대학교 복지상담 대학원(상담학석사)
- 2015년 8월 :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박사과정재학)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가정폭력, 사회복지

변 상 해(Sang-Hae Byun)

종신회원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상담